

21세기 인문가치포럼, 문화 공동체 형성 모색

안동서 9일까지 공감·위로 주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해
훈민정음 재조명의 시간 마련
인문가치대상 시상식 함께 진행

경북도는 제8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한국 정신문화 수도 안동(구름에 리조트 일원)에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북도와 문체부·안동시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정립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국제 행사로 올해 8회째를 맞는다.

포럼을 통해 문화 다양성 시대의 사회적 가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용적 인문가치를 조명하고 문화 공동체 형성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공감과 위로’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 방송인 등 1000여명이 함께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심화된 사회 문제와 인문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 세션, 모색 세션, 참여 세션, 특별 세션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별로 △모색 세션 ‘퇴계인행록에서 인류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다’ △공유 세션 ‘영화콘서트, 공감콘서트,

청춘콘서트, 희망콘서트’ △특별 세션 ‘한글의 미래’란 주제로 심도 깊게 논의된다. 특히 올해 행사에 처음으로 마련된 특별 세션에서는 한글날을 기념해 경북도에서 역점 추진 중인 ‘훈민정음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국내·외 저명교수와 석학들을 초청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토의와 함께 한글 콘텐츠를 미래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한글 비전 선포식도 개최할 계획이다.
7일 개막식에는 장대환 매경미디어 그룹 회장이 기조연사로 나서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대 정신’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개인과 단체 부문 3명에

게 문체부 장관상 등 인문가치대상 시상식도 열렸다.
이철우 도지사는 “현대사회는 양극화라는 피할 수 없는 문제와 공존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포럼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질문과 고민들을 나누며 해법을 모색하고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 나가는 값진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사전 등록자에 한해 현장 참석이 가능하고 홈페이지(<http://www.adf.kr>)와 유튜브(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도, 이전공공기관과 혁신도시 발전 이끌어

지역 발전 계획 수립·상생협력
내실화 방안·정주여건 애로 논의
유휴지 주말농장 활용 등 건의해

경북도는 지난 6일 경북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12개 이전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지역 발전 계획(안) 수립 및 상생협력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충복 도시재생과장과 경북혁신도시 10개 이전기관, 경주로 개별 이전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이전공공기관과 도가 함께 혁신도시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지역 발전 계획의 내실화 방안 및

신도시 정주여건의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혁신도시의 장기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의 법적 제도화, 공공도서관 건립·교통시설 정비·유휴지 주말농장 활용 등 정주여건 개선,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지침의 세부적이고 명확한 규정 등을 건의했다.
김충복 도시재생과장은 “혁신도시시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조성됐지만 이제는 이전기관이 주인공 도시”라면서 “앞으로 지역 산업 육성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며 경북도 역시 혁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경북도-경북대, 발효 커피박의 축산 악취 저감 효과 ‘입증’

농학 관련 SCI급 Q1저널
Agronomy에 논문 게재
연구 우수성 ‘높은 평가’

경북도와 경북대학교는 지난달 24일 커피박과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악취 저감 연구 결과를 ‘Fermented Coffee Grounds Diminish Livestock Odors: A Microbiome Study’라는 제목으로 농학 관련 SCI급 Q1저널인 Agronomy에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축산 악취 저감 효과를 과학적으로 인정받았으며 8일 논문 발표를 통해 연구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도 받았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김상호 연구사는 전국 최초로 커피박이 가공 과정을 거친 후에도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양분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커피박 입자의 높은 표면적 미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경북대학교에 축산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로 커피박의 발효를 의뢰하면서 연구가 시작됐다.
경북대학교 신재호 교수 연구팀은 대학이 수주한 환경부 생물소재대학원 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미생물유전체전략연구사업의 지원을 통해 농업유용미생물로 발효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결국 축산 악취 제거와 동시에 퇴비화도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으로 발효가 되는 조합을 찾아냈다.
이번 연구를 위해 경북도는 영천 화산면 소재 젖소 농가에서 첨단휘발성 유기화합물분석장비(SIFT-MASS)로 축산농가 주변 공기의 악취물질을 추적하는 실증 시험을 진행했다.
경북대학교 연구팀은 첨단의 차세대 염기서열분석장비(NGS)를 활용, 악취물질의 감소와 미생물 군집 변화의 상관관계를 파악했다.

그 결과 악취 저감에 기여한 미생물들 중 96.87%가 축산분뇨가 아닌 발효된 커피박에서 유래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발효 처리가 악취 물질 저감에 직접적으로 작용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악취 저감에 기여한 미생물들은 커피박에서는 낮은 점유율을 보였으나 발효 후에는 급격하게 증식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악취 환경을 개선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을 밝힌 것이다.
김상호 연구사는 “최근 한국의 커피 소비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연구로 농촌의 축산 악취 문제와 도시의 커피박 폐기물 처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백하주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연구 중심 도정의 일환으로 대학교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면서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유용미생물 응용 기술 개발에 경북대와 연구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경북교육청, 학교 업무 경감 ‘힘’
사업 총량제… 417개 통·폐합

경북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사업 총량제’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정책사업 757개의 사업 중 417개 사업(55%)을 통·폐합해 340개의 사업으로 최종 정비했다.
‘사업 총량제’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1개의 신규 사업을 발굴·운영 시 기존

사업 1개를 폐지(폐지, 통·폐합, 이관 등)해 사업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많은 사업 운영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교육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총량제 운영을 위해 정책기획

관이 중심이 되고 각 부서 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 총량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에 한해 운영하도록 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제9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경북예선

초중고생 23명 참가, 금상 등 선반
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자긍심 고취

경북교육청은 6일과 7일 제9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경북도예선대회를 했다.
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다문화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강점인 이중언어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고취해 글로벌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교에서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해 심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번 대회에는 7개 언어(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시리아어)에 초등학생 21명, 중고등학생 15명 총 23명으로 지난해보

다 13명이나 더 많이 참가해 이중언어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발표 주제는 초등학생은 자유 주제, 중고등학생은 ‘자신의 꿈’이다. 발표 방법은 한국어로 발표 후 동일 내용을 부모 모국어로 발표한다.
심사 방법은 한국어 및 부모 모국어로 발표한 동영상을 보고 한국어 심사는 초·중등 교원이, 부모 모국어는 해당 언어권 출신 이중언어강사가 심사를 한 후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 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학교급별 금상 수상자 각각 1명과 소수 언어(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제외) 참가자 중 1명은 오는 11월 6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9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 경북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코로나19 극복의 지름길

백신접종

일상 회복을 위한 첫 발! 코로나19 예방접종

나와 내 가족의 건강 지키GO 지역 경제 살리GO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동참 운동!

경주중심상가연합회가 함께합니다.
(시장상인회)

오셨는고!!

경주중심상가연합회일동

백신접종

백신접종

“탈원전 폐해 덮기… 무리하게 밀어붙인 해상풍력사업 민낯 드러나”

해수부 입지정보도, 발전사업 허가 받은 지역 97%가 입지 부적합
황금어장·주요 선박통항로·해양환경보존구역 등 핵심 해역 위치
이만희 “해상풍력 남발 피해는 어업인·국민들에 돌아갈 것” 경고

어업활동과 해상교통안전 등에 대한 입지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시·청도군, 사진)이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가 난 사업 중 어선밀집도, 어획량, 해상교통안전, 범정구역 등 입지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수는 총 33개소 중 단 1개소(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공식화했고 특히 작년 7월 17일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과 민간 주도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사

업에 뛰어들어 해상풍력사업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

실제로 올 9월 기준 전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43개 사업의 절반에 육박하는 19개 사업이(44%) 모두 7.17 대책 발표 이후 1년 2개월여 사이에 속전속결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어로 활동이나 해상 교통, 해양생태계 등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남발되는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를 막기 위한 해수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7일 계획상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장 상황 등 해상풍력 입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지정보도를 지난해 구축했어야 함에도 수개월째 보완 중인(데이터 입력 후 보정 작업) 상황이고 입지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조속한 입지정보도 완성을 촉구하는 한편 현재까지 구축된 입지정보도를 기반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3개 사업의(좌표 정보 없는 10개 사업 제외) 입지 적정성을 분석했다.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 해상풍력 입지로 적정하다고 판명된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32개 사업은 모두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지역에 위

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어선 밀집도의 경우 16개 사업, 어획량의 경우 18개 사업이 상위 20% 황금 어장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됐고 28개 사업은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주요 선박통항로, 1개 사업은 범정 공원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의원은 “탈원전의 폐해를 덮기 위해 준비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해상풍력사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본다”면서 “입지 적정성에 대한 판단 없이 남발된 해상풍력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업인과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만희 의원은 “더 이상의 무분별한 해상풍력사업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해수부 입지정보도를 보완·공개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세부적인 적정성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길 기자jkk2020@naver.com



경주署 “바쁘더라도 안전모 꼭 착용하세요”

관내 퀵서비스 업체 방문해
교통사고 예방 서한문 전달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경주경찰서는 7일 오전 경주시 관내 운영 중인 퀵서비스 업체를 방문해 교통사고 예방 서한문을 전달하고 배달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모 필수 착용 등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최근 주문배달 보편화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륜차 배달 문화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관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명으로 재작년에 비해 1명 증가했다.

경주경찰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동현 경주경찰서 서장은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간판 불을 끄고 뒷문 출입… ‘몰래 영업’ 대구 유흥주점 덜미

불법 체류 여성·손님 등 22명 적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입건 방침

대구에서 술집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산발적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유흥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까지 영업을 금지됐는데도 간판 불을 끄고 손님을 몰래 받는 등 꼼수 영업을 했다.

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시 등 합동단속반이 지난 6일 오전 1시쯤 수성구에 있는 지하 1층 모 주점에서 불법체류 태국 여성 3명과 남자 손님 16명, 종업원 3명 등 22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불법체류 태국 여성을 고용해 단속 당시 간판 불을 끄고 신

분이 확인된 손님만 뒷문으로 출입시켜 몰래 영업했다.

태국 여성들은 업소 내부 밀실에 숨어 있다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경찰에 발각돼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하고 있는데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적발된 이들

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일명 ‘노래방 도우미’로 불리는 여성 유흥 접객원들이 무등록 보도방을 통해 여러 유흥업소를 옮겨 다니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난 한 달간 무등록 보도방을 집중 단속해 업주 9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낙동강 해평 지점 조류경보 ‘관심’ 단계 해제

전 지점 ‘평상’ 단계로 회복

대구지방환경청은 7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낙동강 해평 지점(칠곡보 상류 22km)에 발령 중이던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평 지점은 매주 실시하는 조류 분석결과 유해납조류 세포수가 지난달 27일 617셀, 이달 5일 746셀이 출현해 ‘관심’ 단계 발령기준(2회 연속 유해납조류 1000세포/mL 이상) 미만으로 감소했다.

이번 해평 지점의 조류경보 발령 해제로 낙동강 중·상류 및 호소 등 6개 조류경보제 운영지점 모두 ‘평상’ 단계로 회복하게 됐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조류경보제 운영지점 전 구간이 평상 상태이나 향후 기상상황에 따라 녹조가 재증식 할 수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에 조류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했고 녹조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상주경찰, 실종 치매노인 가족품으로 인계

적십자봉사회, 구조에 적극 협조

상주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11시 25분경 ‘치매어르신이 보호자 동행없이 집을 나갔다’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상주지회 20명과 함께 낙동면 인근 야산에서 수색 중 오후 3시 31분경 상주적십자 봉사회 정영주씨와 경찰관이 함께 실종자를 발견, 애타게 찾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상주경찰서는 그간 긴밀한 협

력 관계유지와 실종자 구조에 적극 협조한 박미경 회장에게 경찰의 고마움을 담은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상주경찰서와 적십자봉사회는 2018년 4월에 노인 범죄예방 및 실종·가출인 신속발견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안문기 상주경찰서장은 “대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상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방역당국, 연관성 조사 나서

포항과 상주시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80대와 60대 남성이 잇따라 숨져 방역당국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포항의 한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은 80대 남성 A씨가 옛세만인 7월 1일 호흡곤란과 흉통 등의 증상을 호소해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를 받던 중 8월 19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고혈압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주에서도 지난 7월 20일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 받은 60대 남성 B씨가

11일 만인 31일 이상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던 중 50여일이 지난 9월 20일 숨졌다.

B씨는 평소 당뇨와 신장이 좋지 않아 투석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한편 경북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이후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31건, 뇌경색·뇌출혈 등 주요 이상 반응 48건, 경증 1만 5750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백신별 사망 의심 신고는 화이자 40명, 아스트라제네카(AZ) 34명, 모더나 4명 등 모두 78명으로 집계됐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결” 제070604-중-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노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기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력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노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市, 친환경 농업 확산으로 생태계 보호 ‘앞장’

원자력환경공단, 산업재해 사전 예방 ‘노력’

환경부 공모 선정, 9억 확보
친환경 식물영양센터 조성
市 자체 개발 GABA 배양액
생산시설 구축, 2024년 완공

경주시가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9억원의 정부 자금을 받게 됐다. 7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 식물영양센터 조성사업’이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 2022년 낙동강수계 특별 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정부 기금 9억원을 지원받는다.

총 7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이번 공모 사업에 경주시는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현장 실사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낙동강수계 특별 지원사업은 상수원과 댐 주변지역 수질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낙동강수계 23개 지자체 중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시·군에만 지원되는 사업이다. 경주시가 공모한 ‘친환경식물영양센터 조성사업’은 경주시가 특허받은 물론이고 상표권 등록까지 마친

‘GABA 배양액’의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경주시 내 남면 일원에 조성될 신농업 혁신타운 내에 조성되며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친환경식물영양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생산능력은 180t 규모가 될 전망이다.

주낙영 시장은 “친환경 식물영양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수해 농가 수가 2만여가구 이상에 이르고 연간 42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친환경 농업 확산에 따른 주민 소득 증대는 물론 화학비료나 농약 살포 감소로 건강한 수 생태계 보호와 환경 보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GABA (Gamma Aminobutyric acid) 배양액은 대두공에서 발효·추출한 친환경성 아미노산 배양액으로 지난 2008년 제조 방법 특허 등록 후 이듬해인 2009년 활용농법 상품 등록을 완료했다.

현재 이를 활용한 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GABA’라는 이름의 브랜드로 생산·유통되고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서 5개 상주 협력사 모두 우수 사업장
정부포상 우선 추천 등 혜택 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의 5개 상주 협력사 모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을 받았다.

7일 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은 원·하청이 협력해 사업장의 각종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한 사업장으로 수산인더스트리(기계·전기 유지 보수), 수산ENS(계측 및 방사선 환경 조사), 한일원자력(방사선 관리), 고도기술(방폐물 인수검사설비 유지 보

수), 케이엔정보기술(정보통신 설비) 등이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향후 3년간 산재보험료 20% 인하, 정부포상 우선 추천, 보조금 추가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우수 사업장 인정 취득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사내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공생협력단을 발족,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수행·개선에 대한 상담 및 기술 지도 등을 수행해 왔다.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사업장 안전의 동반자인 협력사와 산업 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경주 동국대, 온라인 한국어 연수과정 개설

국제교류처, 한국 요리 만들기 등
문화 체험·언어 교환 프로그램
고등교육 분야 한·중 교류 협력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제교류처는 7일 ‘2021 온라인 한국어 연수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2021 온라인 한국어 연수과정’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한·중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화된 글로벌 고등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온라인 한국어 연수과정은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라 온라인 맞춤형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교내 글로벌 이 러닝 전용 강의실에서 실시간 화상강의로 운영된다.

특히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능력 향상과 학위 과정 입학의 목표로 한국 요리 만들기, K-POP 댄스 배우기 등 온라인 한국 문화 체험 수업과 한·중 학생 간 1대 1 언어 교환 프로그램인 동국 프렌즈를 운영하고 방학 중 단기 방문을 통해 한국어 집중 연수, 한국 문화 탐방 프로그램과 유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유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제교류처장은 “글로벌 MZ세대 학습자들을 위한 우리 대학만의 특화된 온라인 한국어교육 콘텐츠 제공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학생 유치 등 고등교육 기관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경주, 3분기 식수 방사능 분석… ‘모두 안전’

지역 정수장·수산물 대상 진행
정부 허용 기준치 이내·미검출

경주시가 지난 9월 한 달 동안 2021년 3분기 수산물·정수장 식수 방사능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지에서 유통 중인 갈치와 고등어를 포함한 7종, 15개의 수산물과 일본 수입 식품(간장) 1종, 1개의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분석 전문기관인 부산 소재 부경대학교 방사선과학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또 원전 주변 삼중수소 영향평가를

위해 월성민간환경감시센터에 지역 6곳 정수장 식수의 삼중수소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수산물의 경우 일부 시료에서 미량(0.07~0.21Bq/kg)의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정부가 정한 식품 중 방사능 허용 기준치(100Bq/kg)를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6곳 정수장 식수의 삼중수소 분석에서도 모든 시료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경주시청 홈페이지(www.gyeongju.go.kr, 경주소식/원전관련소식/환경방사능감시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한수원 “미래 주역 청소년, 올바른 청렴 가치관 형성”

자기 이름 청렴 삼행시 공모
청렴 그림 그리기 대회 시상
부분별 최우수 등 46명 입상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7일 ‘제2회 청렴 그림그리기 대회’와 ‘자기 이름 청렴 삼행시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한수원 관계자가 입상한 청소년의 학교를 직접 방문에 시상했다.

한수원은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청렴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중요성을 심어 주기 위해 동경주 초·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언택트 방식의 청렴 그림 그리기 대회와 자기 이름을 활용한 청렴 삼행시 공모를 지난 1달 동안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청렴 그림 63점과 청렴 삼행시 308편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각

부분별 최우수상 4명 등 모두 46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

한수원은 지역 청소년 대상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 외에도 지난 9월말 청탁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등 한수원 청렴문화 주간을 운영하며 전 임직원의 청렴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정재훈 사장은 “한수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회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인재 육성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경주교육청, 통계분석 연수 실시
수요자 중심의 행정 기획력 ‘쑥’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원)은 7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획력 향상 통

계분석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행정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다양한 교육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실시했으며 기획 업무의 중요성, 설

문조사 및 통계분석의 방법 등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필요성과 과학적 조사 방법 프로그램 등의 소개로 진행됐다.

박상무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이 기계처럼 반복적으로만 움직이는 업무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연수는 적극행정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연수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경상투데이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주세요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화재 진압을 위하여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차는 불법입니다.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서 지역 매력에 ‘흠뻑’

대박경매, 시민들 관심 뜨거워
10일까지 오후 3시~3시 30분
고품질 특산물 저렴하게 구매
쿠킹쇼·버스킹 등 온라인 진행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4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슈퍼푸드 대

박경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슈퍼푸드 대박경매’는 단 3일간 펼쳐지는 대박 찬스로 엄선된 고품질 의성마늘 및 지역 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어서 이번 축제 동안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박경매는 축제 기간 중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 ‘의성TV’에 접속해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가할 수 있다.

이번 축제는 지역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의성장날’과 유명 셰프 초청으로 진행되는 ‘갈릭 쿠킹쇼’, 지역 대표 관광지를 알리는 ‘랜선 버스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신일연 슈퍼푸드마늘축제 집행위원장은 “군민들과 대면으로 함께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의성의 매력을 제대로 알리

는 축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주수 군수는 “제4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지만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마늘이 더욱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예천 ‘아이스팩 재사용, 1석 3조 효과 톡톡’

90개소에 전용 수거함 설치
환경 오염 예방·자원 절약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기여

예천군이 지난 3월부터 추진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이 환경 오염 예방은 물론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자원 절약 등 1석 3조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자 군은 공동주택 등 90여개소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지난 4월부터 분리수거 시스템을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평일에 예천군 순환형

매립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필요한 양만큼 가져갈 수 있으며 사전에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팀(650-6193)으로 사전 연락하면 직접 배달도 가능하다. 특히 군은 예천농협, 예천축협, 축산기업 예천지부, 예멘푸드 4개 업체와 재사용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수거, 세척·소독, 공급을 전담하는 인력 4명을 배치해 현재까지 21t을 수거하고 10t을 재사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아이스팩은 젤 형태인 고흡수성 수지만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며 소재가 물인 경우에는 물은 버리고 비닐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영주 봉현면보건지소, 에너지 효율 높이는 친환경 시설 ‘거듭’

그린리모델링사업 준공식
고효율 냉난방기 등 설치
한방진료 신규운영 돌입

영주시는 7일 봉현면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봉현면보건지소는 지난 1993년에 완공된 노후 건축물로 2020년 8월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 극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4억8900만원을 확보했다. 5월 착공해 △고단열 벽체 △고성능창 창호 △고효율 냉난방기 △태양광발전시설 △전열 교환 공기순환기 설치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공사 준공으로 지역주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시는 리모델링사업 준공과 함께 시보건소 한방실을 봉현면보건지소로 옮겨 와 일반내과와 한방진료 등 2개 진료과목을 운영함으로써 봉현면 지역주

민에 대한 건강 증진 서비스의 편의성과 진료 효율성을 제고할 전망이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시내와 거리가 있어 그동안 불편함을 겪어 왔다”라며 “보건지소에 새로운 진료과목도 생기고 건물 또한 말끔해져 지역주민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인석 영주시보건소장은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 봉현면보건지소가

지역민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민들 마음의 한풀이까지 어루만지는 인술을 펼치는 지역민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보건소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에 응산보건진료소가 선정돼 하반기 실시설계공역을 시작으로 다음해 9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영양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또래문화 만들어요”

영양여자중·고등학교 학생에
친구 사랑 등교 캠페인 전개

영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남상성)는 지난 6일 영양여자중·고등학교에서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친구 사랑 등교 캠페인을 실시했다. 친구 사랑 등교 캠페인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들과 교직원 및 또래상담자 등 총 30여명이 참여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반가운 인사와 함께 간식세트를 나눠 주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비슷한 연령대와 유사한 경험, 가치관 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로 이뤄진 또래상담자들이 ‘친구가 사랑해!’, ‘친구가 함께하자!’ 등 응원 문구가 적힌 아가씨를 두르고 또래 친구들에 대한 격려와 밝은 인사로 건강한 활기를 전해 주며 이번 캠페인의 효과를 높였다. 올해 신설된 영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친구 사랑 등교 캠페인 이외에도 지역 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또래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오도창 군수는 “청소년들이 영양군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미래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질의

프로그램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안동 ‘병산서원 진입도로~입구’ 통행 제한

풍천 병산도로 정비 공사 시행

안동시는 ‘풍천 병산도로(군도5호선) 정비 공사’ 시행에 따라 현재 비포장 상태인 병산서원 진입도로 시점부터 병산서원 입구까지 도로 통행 제한을 실시한다. 풍천 병산도로(군도5호선) 정비 공사는 폭 5.0~5.5m, 길이 2.2km의 미정비된 군도5호선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병산서원 주변 주민들과 관광객들

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며 최근 편입 토지 보상이 완료돼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일~31일 도로 통행 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 구간 주변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해 교통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청송, 농업 경쟁력 강화·자생력 확보 ‘보탬’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신청받아

청송군은 농업인의 경영 개선 및 농업의 자생력 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청송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단체, 농업법인 등이며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만 3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 스마

트랩 운영 및 조성사업이 추가됐다. 지원사업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용자 한도는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스마트팜 조성·운영(만 39세 이하)은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이하이다. 용자 조건은 연 1%,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해야 하며 최종 융자 금액은 청송군 재정액과 신청 규모에 따라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상주시농산물 공동브랜드 명실상부

친환경농업 중심도시 상주에서 생산된
청정농특산물은 다릅니다.

상주한우

상주포도

상주복숭아

상주배

상주사과

상주벌꿀

상주오미자

상주시

구미, 글로벌 스마트 제조 산업 선도도시 입증

기술과 인간 국제포럼 개최해 인공지능 기술 관련 해답 모색

구미시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금오산 호텔에서 기술과 인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급부상 중인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 인류가 직면한 시대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다.

지난 5일 12년간 선정된 구미시 이달의 기업 150개사의 로고가 새겨진 조명이 금오산을 환히 수놓은 희망로드를 제막하는 것으로 그 시작을 알렸다. 6일 개막식에는 기관·단체장·기업체 대표 등과 사전등록 신청한 참가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장세웅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영상)와 이철우 도지사의 축사 후 박호상 금오공과대학교 차기 총장 (임명후보)의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오는 8일부터 구미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표방하는 과학체전을 선비이고 대회의 사전 붐을 조성기 위해 기획됐다.

다만 전국체전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상 초유의 고등부 단독 개최로 결정된 만큼 이날 포럼도 당초 현장 초청을 하려던 해외 연사들을 온라인 영상으로 변경하는 등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학술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 해외연사로 나선 강연자는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이며 ‘자율주행차의 아버지’로 불리는 세바스찬 스런 전 구글 부사장이 “인공지능이 증기기관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생산성을 향상 시킬 것이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그리고 구미시가 있다”고 피력했다.

국내 연사로 아시아의 대표 전문 미래학자인 최윤식 소장이 인공지능의 현주소와 미래를 진단하고 인공지능과 인류가 공존하는 미래모습을 공유하는

강연과 토론을 펼쳤다.

‘초기술사회 인간의 가치’라는 주제하에 진행된 두 번째 세션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통찰력을 전 세계에 심어준 저서 ‘제4의 시대’ 저자인 바이런 리스 미래학자는 “미래는 기술과 인간이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닌 인간이 기계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나야가 인공지능이 기아·질병·빈곤 종식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렌드 분석 전문가 이준영 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고도로 발전할수록 더욱 각광받는 휴먼터치에 대한 강연을 한 뒤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번 포럼은 기술에만 초점을 두는 단편적 포럼에서 벗어나 기술과 인간이 함께 만드는 미래에 대한 고찰의 계기가 됐다.

한자리에서 만나기 힘든 세계정상급 연사들이 대거 참여해 오프라인 참석자는 물론 온라인(zoom, 유튜브)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오가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이 진행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다가올 기술혁신

주도 성장 시대에는 첨단과학기술 역량이 기업과 지역 나아가 국가 성장의 핵심 요인인 만큼 이번 포럼이 경북도·구미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웅 시장은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대표 도시인 구미시에서 개최하는 이번 포럼이 구미 르네상스 나아가 대한민국의 스마트 제조 르네상스 시대 실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이 미래 신산업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기술과 인간 국제포럼’을 연례화해 명실상부한 구미 대표 국제포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제조산업을 주도해 온 구미시가 앞으로 100년은 글로벌 스마트 제조 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칠곡군, 노인복지 증진 유공자 표창 수여

모범노인 11명·기여자 2명 선정

칠곡군은 지난 6일 소동마루에서 제25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노인복지 증진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수여식은 당초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가 취소되면서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모범노인 11명, 노인복지 기여자 2명을 선정해 13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백선기 군수는 “칠곡군의 어른으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힘써 주신 어르신들과 뒤에서 이를 묵묵히 지원해준 기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계속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철 기자jsc@hanmail.net

상주 삼덕리, 농기구 대신 조종기 들었다

주민 15명 대상 드론 교육 실시 농약 살포 등 농촌 현실 접목해

상주시가 사별곡면 삼덕리 마을만들기사업의 하나로 지난 7월~9월 2개월간 삼덕리(주민위원장 안경동) 주민 15명에게 드론교육을 했다.

동아리 리더 양성과정으로 마련된 교육은 매주 1회(토요일) 총 6회에 걸쳐 구 사별화달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드론교육 과정은 사별곡면 삼덕리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선정했다.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 내용이 비슷한 점을 고려해 다른 마을과 차별화된 드론교육에 도전한 것이다.

주민들은 드론 축구와 드론 농약 살

포 등 농촌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주민 주도형 사업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상주시는 이 교육을 통해 드론동아리 결성을 돕고 동아리 활동의 상시화를 유도해 각종 드론대회에 출전하는 등 사업 종료 후에도 외부 활동을 함으로써 주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마을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시진 상주시 개발지원과장은 “타 마을과 차별화되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주민의 문화·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주민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주민공동체 의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김천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새단장

장애인 경사로 등 중점 공사 현관 로비 게시판 전면 교체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민중)은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으며 김충섭 시장은 6일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을 끝내고 재개강을 한 복지관을 방문해 지친 종사자와 수강생을 격려했다.

지난 2002년 3월에 개관한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 등을 추진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 평균 700명~8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해왔다.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용 어르신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비해 시설은 그만큼 노후화 돼 김천시는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특히 현관 주출입구 장애인 경사로를 현재 기준에 맞게 새로 설치하고 전층(1층~3층) 화장실 개보수, 옥상 방수공사, 건물 내부 도색작업이 중점적

으로 이뤄졌으며 내·외부 사인물과 현관 로비 게시판도 전면 교체했다.

노인복지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지난 7월초 착공에 들어가 9월 중순까지 진행된 리모델링 공사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과 여름방학을 끝내고 이날 5일 재개강을 했다.

교양교육 및 취미생활 프로그램 등 26개 과목 57개반을 편성해 890명의 수강생을 모집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개강을 기다려온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넘쳐보였다.

김충섭 시장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어 지치고 힘들었던 어르신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점종을 마쳤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며 남은 한 해 동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문화생활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고령군, 독감 예방접종 ‘스타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사전 예약

고령군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 도래에 따라 군민들에게 인플루엔자 유행 전에 예방접종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월부터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대상 접종에 이어 오는 12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예방접종이 보건기관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전국 동시에 실시된다.

또한 지자체 접종으로는 만 14세~만 64세 고령군민 중 의료급여수급권

자,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 가정 중 2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예방접종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보건기관 접종 시 반드시 접종가능 한 일정 및 장소를 확인해 사전예약 후 접종하기 바라며 위탁의료기관은 접종 기간 내 예약 및 방문접종 가능하다.

독감 예방접종은 건강상태가 좋은 날 접종하는 것이 좋고 접종 후 15분간 접종기관에서 안정을 취하며 이상반응 유무 관찰 후 귀가해야 한다.

김일호 기자hoyai515@daum.net

아리따움 경주점 대표 박 선 이 경주시 계림로 102 ☎ 054-749-7979	대구경북 교육신문 대표 백 재 욱 경주시 초당길 5번길 3 (동천동, 2층) ☎ 054-745-7277	듀메코리아 대표 황 숙 향 경주시 임해로 120(구황동) ☎ 070-7782-6147	아이비투어 대표 김 재 욱 경주시 엑스포로 45 더케이경주호텔 본관 1층 ☎ 0507-1374-7755	경주평양냉면 대표 윤 영 선 경주시 원효로 109-2 ☎ 054-772-2448
영신정공 본부장 김 영 삼 경주시 천북면 오아리 394 ☎ 054-745-4491	경주시수협 지점장 김 윤 정 경주시 광중길 24 ☎ 054-705-1020	세한금속 대표 김 효 철 경주시 유림로 5번길 133 ☎ 054-773-0221	돈덩어리 대표 우 성 만 경주시 백률로 42 ☎ 054-773-5025	새마을환경개발(주) 대표이사 이 호 정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53 2층 ☎ 010-9113-0051
아호기획광고 대표 이 재 희 ☎ 010-3857-1111	김경희난타연구소 대표 김 경 희 ☎ 010-3953-7576	KB손해보험 경주지점 조봉래 경주시 화랑로 125 5층 ☎ 010-3506-2781	두천개발(부동산) 대표 최 석 환 경주시 백률로 42 ☎ 010-3521-1004	경북종합폐차장 이사 정 관 호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77 ☎ 010-7755-2933

울진금강송 송이와 친환경농산물축제 ‘성료’

개막식 영상 누적 조회수 1만회
경매 시간에 동시 접속자 2천명
피크닉·포토존 인기… 휴식 제공

울진군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온 라인으로 개최한 제16회 울진금강송 송이와 친환경농산물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축제로 축제전용 유튜브 채널 ‘울진이야’를 통해 진행됐다.

지난 1일 오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구해줘 송이(송이경매 및 친환경농산물 라이브커머스 -가수 박서진, 원크, 개그우먼 조수연, 장하나, 조충현등 다수 출연) △신파더 ‘요린이들 송이 요리를 멈추지마’ (신호섭 셰프의 요리 프로그램) △아무튼 송이(100만 유튜브 버 야식이 송이 먹방 및 송이채취 브이로그) △ 유퀴즈 온더송이(송이 관련 퀴즈 -개그우먼 장하나 출연) △울진 어게인(음악 프로그램 - 더크로스 김경현 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축제기간 중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연호공원 일원에 소규모 야외무대, 피크닉존, 포토존도 운

영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했다.

축제 첫날 가수 박서진과 원크가 게스트로 참가한 송이경매 시간에는 실시간 접속자가 2000명이 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어지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는 지역의 임산물, 농산물 업체가 참여해 울진의 특산품들을 실시간 판매홍보 했다.

울진군은 처음 진행해 보는 온라인 축제였지만 개막식 누적 조회수가 1만

회를 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그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축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찬길 군수는 폐회식 인사말을 통해 “제17회 울진금강송송이와 친환경농산물 축제는 반드시 대면 축제로 진행해 송이를 직접 보면서 구매하고 모두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축제이후에도 유튜브에 접속해

‘울진이야’를 검색하면 축제관련 영상을 다시 볼 수 있고 화면 하단에 울진송이와 친환경농산물 판매처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전화 한통으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

송이축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 (054-789-5485) 또는 울진군 산림힐링과 (054-789-6820)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영천 금호도서관, 2021년 책 읽는 가족 시상 도서관 이용 생활화, 408권 대출한 심정미씨에 인증서 전달

경북도교육청 금호도서관(관장 이상욱)은 지난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도서관 이용에 모범이 되는 ‘2021년 책 읽는 가족’을 선정해 시상했다.

‘책 읽는 가족’ 시상은 도서관에 대한 친근한 인식을 높여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국도서관협회와 금호도서관이 시행하는 가족 독서 운동이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자료 대출량, 이용 성실도, 문화 프로그램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가족을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했다.

금호도서관은 지난 한 해 동안 가족 3명이 408권의 책을 대출해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른 이용자의 좋은 귀감이 된 심정미씨 가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정미씨 가족은 “집 인근 영천 금호에 도서관이 있어서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행복하고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식일 기자jsy9220@hanmail.net

울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보고회

산업 고도화·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

울릉군은 지난 5일 울릉군청 회의실에서 울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4개년 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

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 앞서 지난 4일 울릉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이날 중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작년부터 본격적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며 울릉군의 발농업 특성을 살려 발농업 진화 주체 발굴·육성 및 6차 산업화지원, 액션그룹 발굴, 진화거점센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정은 기자054791@naver.com

20기 민주평통 청도군협의회 출범식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도군협의회(회장 최천)는 7일 청도군청 대회의실에서 대행기관장인 이승을 청도군수와 지역대표 10명, 직능대표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임기 2년의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승을 청도군수는 대통령을 대신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동시에 제20기 최천 협의 회장 취임식도 진행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창설 41년

을 맞았으며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합의를 이끌고 범민족적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번 청도군협의회는 37명의 위원 중 21명이 연임하고 16명이 새로이 위촉됐다. 또한 출범식 기념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100만원을 기탁해 행사를 더욱 빛냈다.

장종길 기자wkdwdrif@hanmail.net

경산 발전·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선 ‘시민상’ 수상자 선정

사회복지·산업건설·특별상 부문
13일 경산시민의 날 기념식서 수여

경산시는 지난 1일 경산시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경산시민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회복지 부문에 이덕재, 산업건설 부문 정석현, 특별상에는 백서재씨를 올해 경산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경산시민상 수상 후보자는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고를 통해 접수했으며 심도 있고 공정한 심의과정을 거쳐 수상자가 결정됐다.

사회복지 부문 수상자 이덕재씨는 현재 암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협의체 위원장 재임 시 사비로 주거 환경개선사업, 생필품 및 식료품 지원, 명절선물 나눔 등을 했고 라이온스 클럽에도 소속돼 있어 저소득 가정과 관내 경로당에 가전제품, 장학금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경산문화원장, 정책자문위원, 시민정책평가위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산업건설 부문 수상자 정석현씨는 오랜 기간 농업발전을 위해 활동했고 과거 4H훈련 농장주와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10여년 이상 원예, 축산분야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또한 명예 농촌지도사로 활동하면서

영농기술 보급에 힘써 왔으며 전국새농민회 이사, 대구경북새농민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해 그 공적을 인정받아 한국농어민대상을 수상했다.

특별상은 관외 주소를 두고 경산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번 수상자 백서재씨는 진량읍에 본사를 둔 ㈜대영전자의 대표이다.

매년 20% 이상의 성장기록과 함께 지역인재 채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무료급식센터 기부, 장애인센터 봉사활동, 지역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등 사회 환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영전자를 경영하면서 지난 2009

년 500만달러 수출탑, 2010년 1000만달러 수출탑, 2017년 5000만달러 수출탑 등을 수상하고 경산 희망기업과 경북 프라이드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명예 경산시장, 명예 남산면장을 체임하면서 꾸준한 시정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경산시민상은 지난 1985년 경산군민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5년간 각 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해왔으며 지난 2020년까지 총 57명의 수상자가 영광을 안았고 2021년도 경산시민상 수상은 오는 13일 제26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이종한 기자jota123@hanmail.net

울릉 생활개선회, 의료원에 위문품 전달

생활개선회울릉군연합회는 지난 6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예방 및 방역업무에 지친 울릉군 보건의료원 관

계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위문품은 손수만든 쌀디저트(케익, 빵) 등 농업인 여성들이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쌀디저트 전문가 자격취득과정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만든 간식 150인분 가량이다.

이숙희 회장은 “코로나19 방역활동이 장기화 되면서 예방접종, 자가격리

전담업무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인력들이 많이 지쳤을 텐데 많은 분들이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바란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임정은 기자054791@naver.com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정 동 식 경주시 원화로 285, 3층 ☎ 054-771-3344	공간종합주방 대표 양 주 석 경주시 알천남로 128 ☎ 054-774-1444	(주)강산투어 대표 최 병 오 경주시 원화로 372 ☎ 054-753-7777	장영남공인중개사 대표 장 영 남 용황로10길 14 ☎ 054-748-1472	영양숯불갈비 대표 황 태 욱 경주시 봉황로 79 ☎ 054-771-2627
아시아나스포츠 대표 최 병 진 경주시 화랑로47번길 3 ☎010-5588-9999	중앙마트 대표 최 병 오 경주시 화랑로 42 ☎ 054-775-3241	한국대중음악박물관 부관장 도 인 속 경주시 엑스포로 9 ☎ 054-776-5502	세무법인텍스코리아 대표 김 창 호 경주시 원화로 306 (성동동, 5층) ☎ 054-777-2666	조방낙지 대표 손 일 희 경주시 중앙로29번길 13 ☎ 054-775-3002
가인전력에너지 대표 김 영 철 경주시 안강읍 북부리2길 37 ☎ 054-762-2007				

경주엑스포대공원, 대대적 콘텐츠 변화 예고

인피니티 플라잉 10주년·우리놀이터 개관 기념행사 개최
불꽃 퍼포먼스·드론쇼·타악 퍼포먼스 등 선배 ‘분위기 업’

경주엑스포대공원은 지난 6일 ‘인피니티 플라잉 10주년 및 우리놀이터 개관’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콘텐츠 개편 운영을 예고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상설공연으로는 최초로 10주년을 맞은 ‘인피니티 플라잉’의 지난 시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과 변화된 무대를 예고하는 자리로 마련돼 이철우 도지사와 주낙영 시장 등이 참석했다.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앞 천마광장에 설치된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10주년 기념행사는 판관과 장구춤, 대금산조, 타악 퍼포먼스 등이 사전무대로 열려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어지는 메인무대 불꽃쇼는 ‘찬란

한 빛, 신화의 불꽃’을 주제로 스토리와 화려한 불꽃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무대로 펼쳐졌다. 특히 300대의 드론이 스토리 구간마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다양한 메시지를 담은 화면을 연출해 장관을 이뤘다.

불꽃쇼의 스토리는 도깨비를 불러내는 제의식을 시작으로 도깨비의 난장, 사람을 유혹하는 도깨비의 요술 등이 배우들이 펼치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결합돼 꾸며졌다. 번개를 연출한 조명과 리본과 휠, 자전거 등 도구를 활용한 불꽃 퍼포먼스, LED봉을 통한 액션을 빈틈없이 구성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파이어 퍼포먼스를 연출한 최철기 총감독의 연출력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특히 신라금관과 천마도, 하트, 경북도와 경주시를 상징하는 슬로건 등을 그리며 경주엑스포대공원의 하늘을 수놓은 드론쇼는 무대를 압도해 감탄을 자아냈다.

화려한 불꽃쇼는 추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 이철우 도지사와 주낙영 시장 등 일행은 공연이 끝난 후 경주엑스포대공원 가을 시즌 프로그램인 ‘투미나 해피 할로윈’ 코스를 직접 둘러보고 창작예술단 ‘리어예술단’이 현장에서 꾸미는 이색적인 현대무용 버스킹에도 함께 참여했다.

한편 인피니티 플라잉 10주년 기념공연에 앞서서는 전통놀이 문화공간 ‘우리놀이터 경주’ 개관식이 진행됐다.

전통놀이 문화공간 ‘우리놀이터 경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한 ‘전통놀이 문화공간 시범 조성 대상지 공모’에 선정돼 구축한 체험형 콘텐츠다.

전통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보드게임과 AR을 활용한 게임 형태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난 추석 연휴부터 운영을 시작해 관람객을 맞으며 호평을 받고 있다. 개관식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등이 참석해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철우 도지사는 “행사는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비상하는 ‘인피니티 플라잉’과 전통놀이를 새롭게 즐길 수 있는 ‘우리놀이터 경주’ 등 경주엑스포대공원의 대대적인 콘텐츠 변화를 예고하는 자리가 됐다”며 “문화관광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청도군,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큰 호응’

16개 분야 상담·서비스 제공

청도군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운영한 ‘2021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의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군은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민원팀을 구성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9개 읍·면을 순회하고 있다.

군은 현장 민원실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건축·지적·개발공시지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사회복지, 건강

상담, 환경, 규제 애로사항, 지적측량 등 16개 분야에 대한 상담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6일 금천면을 끝으로 마무리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은 회당 평균 100여명의 주민이 방문해 지적·측량·특별조치법 등 토지 관련 280건, 복지 90건, 규제 애로사항 35건, 건강 2530건 등의 민원 상담과 함께 다양한 시책 홍보물 13종을 배포하며 지역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장종길 기자wkdwdr1f@hanmail.net

예천군, 과수농가 지원 주력...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선정
감천면 벌방지구 시설 현대화 추진

예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인 ‘2022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감천면 벌방지구(33ha)가 선정돼 사업비 15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집단적으로 재배되는 과수 품목의 용

수원 개발, 개별 과원에 용수공급시설 설치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다.

그동안 군은 과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개발, 배수로 정비, 경작로 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며 과수 수출단지 정비는 물론 대형 유통업체 출하 등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167억원 사업비를 들여 관내 13개 지구 535ha 규모로 사과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농업인들에게 기계화 경작을 지원했으며 농업용수 개발로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가뭄피해 대처능력을 극대화시켰다.

특기 국비 지원율이 80%나 되는 사업이라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이 치열

한 가운데 예천군은 감천면 벌방지구 총 사업비 중 국비 12억4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김학동 군수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뿐만 아니라 과수농가 지원에 주력해 고품질 과수생산으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을 육성하고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청송 도평초,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로 ‘글로벌 교육 불균형 해소’

4·5·6학년 대상 세계 문화 등 탐구
직업 대해 경험하며 꿈과 진로 설정

청송 도평초등학교는 지난 6일, 7일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실시하는 ‘2021년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에 선정돼 도서관과 체험버스에서 영어체험교실을 실시했다.

영어체험교실은 학교 원어민 감소, 사설학원 부족으로 영어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경북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와 저소득층 등 교육환경 취약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원어민교사와의 수업으로 영어를 통한 교육복지모델 구현 및 글로벌 교육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친숙한 경



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 체험교실은 4학년과 5~6학년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학생들은 먼저 세계의 국가들에 관한 문화와 지리적 요소, 관광명소, 의식주를 탐구하는 세계 문화체험을 했다.

이어 다양한 직업에 대해 경험하고

탐구하며 자신의 꿈과 진로를 설정하는 체험을 했다. 또한 TV 모니터와 음향 장치를 통해 영어노래와 춤을 배우고 미국 화폐와 경제개념을 학습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능력에 적합한 동화책 및 소설책을 재미있게 들려주

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했다.

박경희 교장은 “영어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친숙한 경험을 제공해 준 좋은 기회가 됐다”고 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구미대, 입학 동시에 취업까지 ‘원스톱’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개설
게임컨텐츠스쿨 등 3개 운영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해

구미대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스마트팩토리과, 게임컨텐츠스쿨, AI의료뷰티맞춤화장품과 등 3개 학과로 학과별 입학정원은 30명이며 2022학년도에 입학할 신입생 90명을 모집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개설되는 이들 학과에는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돼 입시생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학 면접이 기업체가 참여한 취업면접으로 입학이 결정되면 취업이 확정되며 해당 학과와 협약된 기업을 선택해 면접을 볼 수 있다.

입학 후 혜택 또한 파격적이며 1학년 동안 등록금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학기별 2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이 나와 연간 4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2학년 1학기에는 기업체 근무와 대학 수업을 병행하며 등록금의 75%가 지원되고 기업체의 급여(최저임금의 70%)도 받게 된다. 등록금 25%가 부담이지만 국가장학금 대상이라면 이

마저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학년 1학기를 마치면 조기졸업을 하고 일반 학과 학생들에 비해 한 학기를 줄인 3학기 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면서 기업체 정규 직원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취업과 다양한 혜택도 파격적이지만 3개 학과의 협약기업들이 4차 산업의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견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지난달 기준 협약기업은 40여개 기업이다. 대기업, 상장기업을 비롯 유망한 중견기업들과 협약을 체결, 내달 20일까지 최종 협약기업이 결정된다.

구미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정부 지원사업의 초기로 이번엔 첫 입학생을 모집한다. 그만큼 혜택도 파격적이지만 향후 사업 내용의 변화와 지속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 모집이 입시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원서접수는 구미대 홈페이지에서 무료 접수 가능하며 모집일정은 수시 오는 11월 8일~22일이며 정시는 12월 30일부터 1월 12일까지다.

전형방법은 3개 학과 모두 학생부 100%이며 협약기업이 참여하는 면접고사는 오는 11월 26일, 27일이다.

게임컨텐츠스쿨은 면접 시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지참해야 한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지원한 학생은 해당과의 모체 학과에 한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대구도시공사 ‘ESG금융인증’ 최고등급 획득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GBP·SBP 기준 부합
친환경·사회 공헌 모두 충족… 발행 채권 지속적 관리 예정

대구도시공사가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한국신용평가로부터 ESG금융인증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STBI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ESG금융인증은 ESG발행채권 대상 사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적합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평가이다. 대상 사업의 ESG 적격성과 발행기

관의 ESG 체계성에 대해 평가해 최종 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ESG채권을 발행한다.

대구도시공사가 이번 ESG금융인증 평가에 내세운 프로젝트는 공원 일몰제로 인한 도심 내 녹지 훼손 방지, 달성 공원 동물원 이전, 공공 주택 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신용평가는 해당 사업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 원칙(GBP)과 사회적채권 원칙(SBP) 기준 모두에 부합한다고 밝히면서 친환경과 사회 공헌 측면을 모두 충족시키는 ESG 우수 사업이라고 평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프로젝트 적격성을 검토하는 1단계 평가에서 E1등급을 부여받았으며 ESG채권조달자금 관리체계 및 투명성을 분석하는 2단계에서는 E2등급을 부여받았다. 각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이다. 1, 2단계 평가

를 종합해 STBI이라는 최고 등급을 부여받은 대구도시공사는 앞으로 한국신용평가로부터 발행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예정이다.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ESG금융인증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은 평소 공사의 임직원이 ESG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힘쓴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ESG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ESG경영을 선도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직원들 열정 다해 일하는 근무환경 조성”

안동·전공노, 단체교섭 상견례
노·사간 상호이해 증진의 장

안동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동시지부는 지난 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권영세 시장과 유철환 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상견례는 경과보고, 양측 교섭위원 소개, 양측 대표교섭위원의 인사와 교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 서명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02년 창립된 전공노 안동시지부는 안동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지난 8월 창립 이후 최초로 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안동시지부에서 제출한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총 120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활동 보장 및 노사화합 △노동조건 및 인사제도 개선 △조합원 후생복지 향상 등 조합원 권익 신장에 관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철환 지부장은 “이번 단체교섭이 조합원들이 평소 근무 중 체감한 애로를 해소하고 노·사간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직원복지 향상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권영세 시장은 “이번 단체교섭은 안동시지부가 설립되고 처음으로 이뤄지는 교섭이기에 그 의미가 특별하다”며 “직원들이 소신과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와 집행부가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상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향후 시와 노조는 요구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실무교섭을 시작하고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는 대로 최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김천, 국악기 제조·유통 업체 ‘고씨공방’ 백년소공인 선정

제조업 업력 15년 이상 숙련기술
시설 개선·판로 지원 사업비 받아

김천시는 지난 5일 2021년 백년소공인에 선정된 고씨공방(대표 안경미)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제조업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을 가진 소공인의 신청을 받아 백년소공인으로 선정하고 선정 업체는 “2021년 백년소공인 성장지원 사업” 지원 대상이 돼 시설 개선 및 판로 지원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2021년 백년소공인 현판식에는 이창재 부시장, 이우영 시의회 의장, 김동기·백성철·김응숙 시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승호 구미센터장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선정업체를 축하하고 경영의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번 현판식이 열린 ‘고씨공방’은 국악기 제조, 유통 업체로 상모와 관련된 제품이 주 생산 품목이며 제작 원천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판매로 고객의 접근성



을 높이고 국악의 세계화와 생활 국악 실현을 설립 목적으로 하며 국악교육과 공연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창재 부시장은 “지역 업체의 백년

소공인 선정과 현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우리나라 전통놀이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고씨공방’의 노력을 격려하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본 사업의 취지와 같이 1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는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백년소공인으로 김천시에는 ‘고씨공방’ 외에도 ‘김천방짜유기공방, 삼성공업사, 동해식품’ 4개소가 선정됐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신보·전기공사공제조합, 보유 데이터 교류로 새 가치 창출

관련 업무 협약으로 경쟁력 제고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 뒷받침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과 7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상호 교류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상거래 신용지수 등 비금융정보 기반 혁신금융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업 정보를 상거래 신용지수 고도화에 활용하고 전

기공사공제조합은 신보의 상거래 신용지수 및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 분석 정보 등을 제공받아 기업 신용평가, 보증 및 융자사업 심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대고객 서비스 개발과 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

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데이터 기반 협업의 초석을 마련하고 데이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체계가 구축됐다”면서 “앞으로도 신보는 금융기관,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의성,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온라인 29일까지, 방문은 18일~29일 신청 가능

의성군은 지난 8월 1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1·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20억원, 1494건이 지급됐으며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은 확인지급 신청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확인지급은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거나 ‘추가자료 제출 필요’인 증빙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압류 등으로 신속지급 신청 불가 △지원유형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이거나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사이트(희망회

복자금.kr)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9일까지 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소상공인진흥공단 안동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신청은 지급대상자 중 온라인 인증불가, 타인계좌 수령,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로 제한되며 방문예약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신청 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검증·확인 후 계좌입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기를 바라며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자임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상주 농기센터, 행복 농촌 가정 육성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일, 7일 이틀간 화동면 소재 신의터 농원에서 행복한 농촌 가정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활개선회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화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 사회의 가정 소통과 공감을 통해 갈등 해소와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누룩소금·된장 만들기 및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정화합 특강,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체험으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누룩의 효능과 활용 방안을 습득하고 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모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등 교육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김천, 가정위탁 부모·담당자 교육



김천시에서는 지난 6일 김천시청 강당에서 가정위탁 부모 및 업무 담당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가정위탁아동 부모들이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위탁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위탁아동의 발달 특징 및 양육기술 훈련 등의 교육시간을 갖고 각 위탁가정의 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전문가와 함께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오늘 교육을 계기로 위탁가정이 행복해지고 위탁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주)유창솔루션, 경주 지역에 선한 영향력 전파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방문
중증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에
직접 개발한 방식 200개 전달해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지난 4일 (주)유창솔루션에서 중증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종사자에 전달해 달라며 방식 200개 (시가 600만원)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주)유창솔루션은 경주시 천북면 소재 폴리우레탄 발포기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이번 방식은(MZ win 공정 방식, 3D 매쉬, 메모리폼 방식) 김원석 대표이사가 직접 개발했다.

본격 출시에 앞서 선보이는 것으로

가볍고 인체공학적 설계로 편안함, 뛰어난 쿠션감과 통기성을 자랑하고 있다.

박귀룡 센터장은 “귀한 마음과 선한 영향력을 담아 전달된 방식은 경주시 관내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키워나가는 중증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종사자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전달받은 후원물품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감을 갖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역 중증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실현하며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써의



스스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박성진 기자wba112@daum.net

성주 공예가협, 인재 육성·저소득층 ‘큰 도움’

별고을 장학회 100만원·공동모금회 100만원 각각 기탁

성주군 공예가협회에서는 7일 별고을 장학회 100만원과 공동모금회 1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지난 4월부터 성주 관내 공예가들과의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 공예품의 전시·판매 장소 부족, 성주 공예인 연합회 필요성 등 공예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올해 6월 성주 공예가협회가 창립됐고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6일간) 창립전을 진행했으며 경매행사

및 체험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 200만원을 별고을장학회 및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성주 공예가협회 김중훈 회장은 “공예가협회 창립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공예가협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병환 군수는 “협회에서 기탁해 주신 금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



득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성주군 교육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안동 와룡면 사회보장협, 버섯재배키트 지원



안동시 와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장협의회와 함께 지난 6일 관내 홀몸 어르신 42명을 대상으로 버섯재배키트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안동시이웃사촌복지센터 공모 특화사업으로 코로나19 및 거동 불편 등으로 집에 홀로 계시는 홀몸 어르신의 건강과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체 위원과 이장이 직접 버섯재

배키트 전달 및 관리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권기식 민간위원장은 “코로나 블루 등으로 힘들어하는 홀몸 어르신들이 버섯을 키우는 재미와 함께 직접 키운 버섯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은 증진하고 고독감은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영수 기자oms7227@nate.com

옥산면 새마을부녀회, 자연정화 봉사 구슬땀



의성군 옥산면 새마을부녀회 회원 20여명은 지난 1일 금봉저수지에서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연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옥산면 새마을부녀회는 이번 금봉저수지 주변 환경 정비 활동을 통해 하천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 및 낚시객으로 인한 폐기물 1t을 수거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했다.

정은자 새마을부녀회장은 “금봉저수지 주변은 옥산면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 및 낚시객들이 애용하는 장소라 더욱 주변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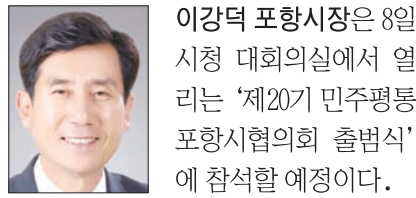
김득한 면장은 “앞으로도 아름다운 옥산면을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인 활동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동 정

제102회 전국체전 개최식



제20기 민주평통 포항협의회 출범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패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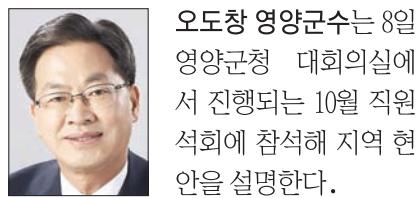
제16회 임산부의 날 행사



제69주년 재향군인의 날 행사



직원석회 참석, 현안 설명



실경뮤지컬 공연 참석



서석준 前 부총리 순국 38주기 추모



자랑스러운 달성인상 시상



다문화를 피우는 꽃,
존중이 밑거름입니다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생각들이 소통되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에 건강한 다문화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국민 김용규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는 지난 6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영만 대행기관장(군위군수)과 자문위원, 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기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제20기 회장으로 취임한 이우석 회장은 “지난 2년간 협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 애쓰신 은헌기 회장을 비롯한 19기 자문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평화통일을 여는 위대한 발걸음에 자문위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지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평화통일의 첫걸음이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취임 인사를 전했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민주평통 의성협의회, 20기 출범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성군협의회(회장 신기호)는 지난 6일 의성군청 대회의실에서 협의회 임원 및 기관단체장 등 4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기 의성군협의회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제20기 지역협의회 구성 현황 보고 및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배치 전달식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3분기 정기회의에서는 제20기 자문위원 안내를 시작으로 제20기 임원진 인준 및 소개, 협의회 임원 임명장 수여, 제20기 협의회 운영 방향 및 자문위원 상견례 순으로 진행됐다.

김주수 군수는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 및 평화통일 의지 역량 제고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출범한 제20기 자문위원 모두 지역사회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묵묵히 헌신”

이은정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부장 25회 노인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이은정 부장이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00세 어르신 2명에게 청려장을 증정했다.

이어서 노인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 기여자를 선정해 국민훈장 2명, 국민포장 2명, 대통령 표창 15명, 국무총리 19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이은정 부장은 지난 2004년부터 복지 현장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

후생활 영위를 위해 헌신했다.

지난 2011년 달성군노인복지관을 거쳐 2018년 12월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개소와 함께 관내 다사, 하빈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특히 품물공연봉사단, 문화공연봉사단 등 10여개의 다양한 노인봉사단을 창단 및 운영했고 도농복합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에 기반을 둔 효문화 공모전, 이동복지관사업, 세대통합 전통문화 축제 등을 개발 운영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화 및 가정 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과 정보 제공, 복지 상담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솔선수범해 노인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은정 부장은 “큰 상을 받아 너무나 영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어

르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며 어르신 모두가 활기차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관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박강석기자parkzest@naver.com

영천 스타사랑봉사단, 이웃 돕기 ‘정성 모아’

영천시 스타사랑봉사단은 지난 2일, 5일 이틀에 걸쳐 체육회, 서문지역아동센터, 큰사당지역아동센터, 온누리요양원, 용평마을양로원 등 이웃들을 위해 120여박스의 단호박과 고등어 등을 기부했다.

김서현 회장 및 조삼열 후원회장은 “비록 작은 물품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기문 시장은 “봉사단의 정성 어린 마음을 잊지 않고 시에서도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영천시 스타사랑봉사단은 지난 2021년 여성 회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9월 11일에도 수해 및 저소득 가구에 200박스의 단호박을 기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김천 화전리 ‘버섯 향 가득~’ 송이축제 성료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자연그대로 작목반(대표 문동원)에서 지난 6일 송이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에는 이창재 부시장, 이병기 시의회 운영위원장, 남용철 시의원, 정태희 대산농협장과 주민,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자연그대로 작목반은 토마토를 주로 재배하는 농가로 한국임업진흥원의

2021년 산촌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으로 개화해 대덕 임업 주산물인 자연송이버섯을 홍보하고 지역농가 소득 증대, 산촌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작목반원과 주민이 함께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사업 비전 선포식을 열고 송이 향이 가득한 파스타를 나누며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광수기자kgs5149@naver.com

상주 “행복과 나눔이 있는 화서면 만들어요”



상주시 화서면은 지난 5일 화서면 신봉리 112-3번지 일원 유휴 부지에 심은 고구마 수확 작업을 했다.

면 직원, 지역활력플러스·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구마 120박스(10kg)를 수확했으며 고구마는 어려운 이웃, 독거노인, 마을 경로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화서면에서는 매년 행복 나눔사업

일환으로 유휴지에 고구마, 들깨, 감자 등 다양한 농산물을 심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왔다.

윤보영 면장은 고구마 수확 행사 참여에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웃과 함께 훈훈한 사회를 만들고 행복과 나눔이 있는, 정이 넘치는 화서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찬완기자changwan12@naver.com

군위 자연사랑연합, 탄소 저감 ‘힘’



자연사랑연합회 군위지회(회장 김민정)는 지난 6일 군위군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을 포함한 지역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탄소 저감 녹색생활 실천 운동’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미세먼지 정화식물 화분과 마스크를 배부하고 자자연·다문화센터 간 ‘탄소 저감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녹색생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김영만 군수는 인사를 통해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가 우리 세대의 숙명”이라고 강조하면서 참석자를 격려했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울진 죽변고 ‘마음 성장 퀴즈대회’



울진군은 지난 6일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죽변고등학교 1학년 96명을 대상으로 ‘도전! 건강벨 마음 성장 퀴즈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울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죽변중·죽변고가 함께하는 마음성장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청소년기 정신건강 실태를 알리고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상반기부터 진행된 마음 들여다보기·디지털 리터러시 강의를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 죽변고 학생 중 최후의 3인으로 선정된 학생들이 마지막 건강벨 문제에 도전했다.

최후의 3인으로 입상한 한 학생은 “다음 달에 있을 죽변중학교 동생들도 건강벨을 울릴길 기원한다”라고 응원 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성주기자ksj09102@naver.com



김천시

Happy together 김천

친절·질서·청결운동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김천!

7대 실천목표

- 친절한 김천시민
- 질서 지키는 김천시민
- 청결한 김천시민
- 참여하는 김천시민
- 양심 있는 김천시민
- 예절 바른 김천시민
- 배려하는 김천시민

<https://gc.go.kr>

#자두 #포도 #호두 #지례해매치 #산채정식 #과하주 #직지사 #부항댐 출렁다리 #레인보우 짬이이어 #수도산 무흘구곡 #사명대사 공원 #김천혁신도시 #김천일반산업단지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코로나로 재미없던 일상, 예술 만나 다시 풍성”

대구문화예술회관, 12일~11월 5일
지역 예술인·시민 심리 방역
프로젝트 ‘점프업-JUMP UP’
전통·퓨전국악, 발레 등 공연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예술인과 시민 심리 방역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점프업-JUMP UP’을 진행한다.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과 비슬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했던 지난해 3월, 대구지역 공연장들은 문을 닫고 예술인들은 직격타를 맞았다. 당시 대구문화예술회관은 국내 최초로 현장 관객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형식의 라이브 공연 중계를 시행했다. 이는 혼란의 시기에 발 빠른 대응으로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

다. 올해 점프업(JUMP UP) 프로젝트는 무대가 줄어들든 프리랜서 예술가에게는 무대를, 코로나 블루에 처해있는 시민들에게는 예술을 통한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한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동반·상생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9월에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후 총 80개팀의 430여명 예술인을 선발했다. 신진부터 중년, 원로 예술인들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함께한다. 음악, 국악, 무용 3개 장르를 대상으로 모집해 클래식, 재즈, 대중음악, 판소리, 전통·퓨전국악, 한국·현대무용, 발레 등 다양한 공연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 공연 현장에서 대면 공연으로 이뤄지며 오랫동안

안 지친 시민들의 일상에 삶의 여유를 제공코자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입장권은 공연 당일 공연 1시간 30분 전부터 티켓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좌석 띄어 앉기를 실시하며 전체 좌석수의 50%만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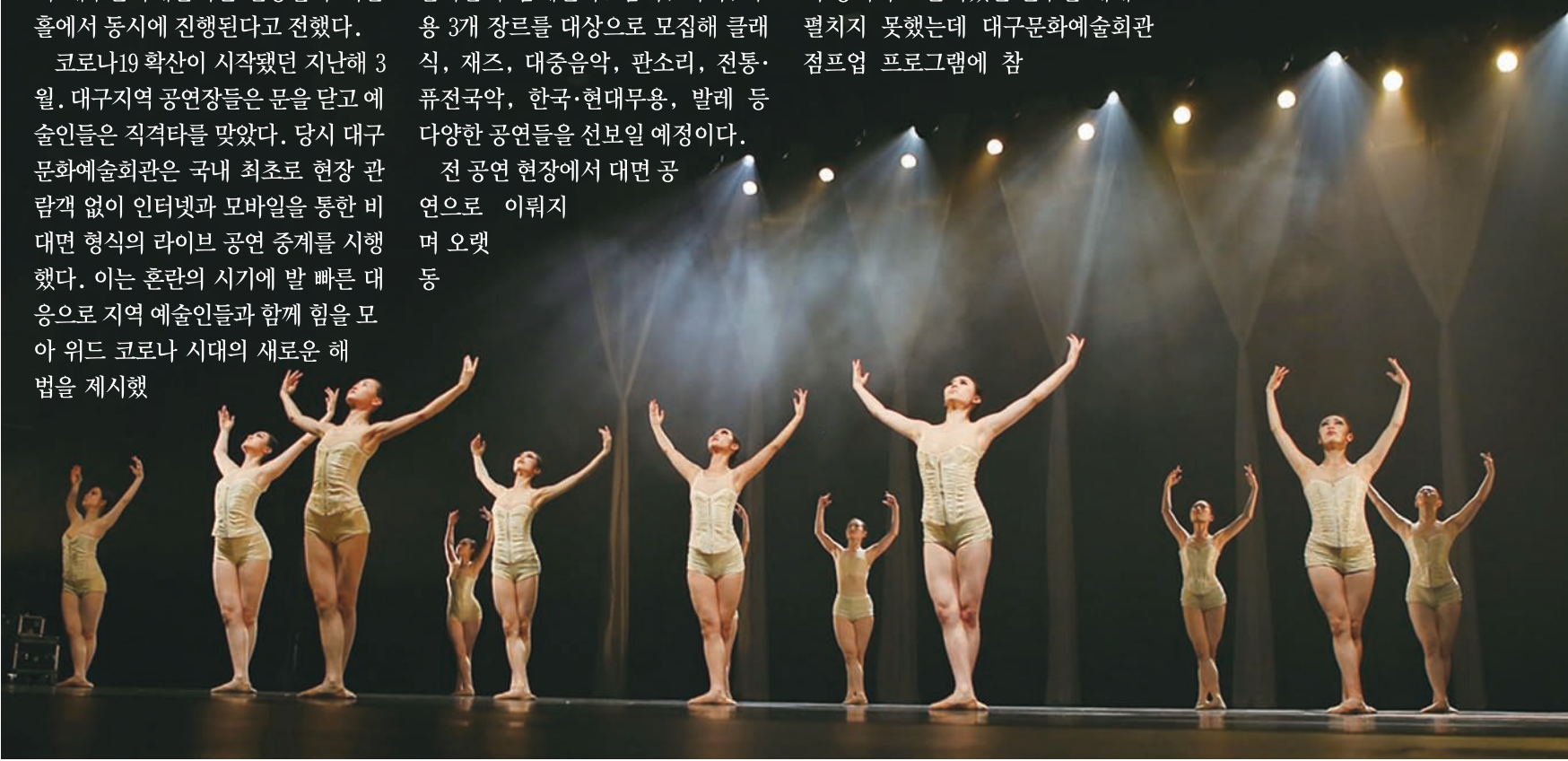
한 시민은 “코로나19로 재미없던 일상이 예술을 만나 다시 풍성해진 기분이 든다”라고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연을 준비하는 예술인들은 “팬데믹 장기화로 준비했던 연주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는데 대구문화예술회관 점프업 프로그램에 참

여할 기회가 주어져 행복하다”라며 심경을 전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김형국 관장은 “코로나19로 우리가 배운 것은 ‘함께’라고 생각한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겨내기 힘들었을 것이다”라며 “대구문화예술회관은 늘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대표 기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



칠곡 할매들, 나이 육십 넘어 배워 만든 글꼴 ‘용민정음’ 화제

한글 사랑운동 확산 등 위해
‘칠곡할매 굿즈 전시회’ 열어
주인 제작 병풍·술잔 등 30점

우리말 보급·교육에 앞장선
외솔 최현배 선생 손자 참석
한글날 기념, 훈민정음 낭독

“어릴 적 배움의 기회가 없어서 한글을 깨칠 수 없었지만 이런 이유로 내 나이 육십이 넘어 배우는 공부야 더 즐겁구나. 이제는 배움을 베풀고자 사람마다 해금 쓰기 쉬운 다섯 개 글꼴을 배포했으니 칠곡군민 모두의 자량이 돼라”.

칠곡할매글꼴을 제작한 칠곡군이 한글날을 앞두고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빔대에 국문들이 널리 편하게 칠곡할매글꼴을 이용하라는 의미인 ‘용민정음(用民正音)’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칠곡군은 지난 6일 군청 갤러리에서 칠곡할매글꼴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한글 사랑운동 확산을 위해 ‘칠곡할매 굿즈 전시회’를 열었다.

칠곡할매 굿즈는 칠곡할매글꼴을 활용해 칠곡군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병풍, 술잔, 부채 등의 30여점의 홍보 물품으로 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계속된다.

이날 행사는 백선기 군수의 격려사와

훈민정음과 용민정음 낭독에 이어 굿즈 제작 소감 발표와 라운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일제 강점기 조선어학회를 창립하고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만드는 등 우리말 보급과 교육에 앞장선 외솔 최현배 선생의 손자 최홍식(68) 교수가 참석해 칠곡할매글꼴을 만든 다섯명의 할머니와 만남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최 교수는 한글날을 기념하고 훈민정음 낭독 등을 위해 이날 전시장을 찾았다.

칠곡할매글꼴을 제작한 추유율(87) 할머니는 최현배 선생의 제사상에 올려 달라며 자신이 직접 재배한 햅쌀을 손자에게 전달했다.

일제 강점기 시절 한글을 지키고 팔

순이 넘은 나이에도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대중화 시켜준 최현배 선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손자 최홍식 교수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대표이사, 한글학회 재단이사, 외솔회 명예이사장, 연세대학교 이빈후과 명예교수 등을 역임하며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과학화에 기여했다.

최홍식 교수는 “한글은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조차도 외래어를 무분별한 남용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칠곡할매글꼴을 통해 우리말과 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국으로 확산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선기 군수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칠곡할머니들은 가난으로 자신의 의

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한글을 배우지 못해 어리석은 백성이 됐다”며 “세종대왕은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기에 칠곡할머니들은 훈민정음을 추구하는 정신을 가장 잘 구현했다. 칠곡할매글꼴에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칠곡군은 지난해 12월 성인문해 교육을 통해 뒤늦게 한글을 깨친 할머니 400분 중 개성이 강한 글씨체를 선정해 칠곡할매글꼴로 제작했다.

글꼴은 글씨체 원작자의 이름을 딴 △칠곡할매 권안자체 △칠곡할매 이원순체 △칠곡할매 추유율체 △칠곡할매 김영분체 △칠곡할매 이종희체 등 5가지다.

전상철 기자jsc@hanmail.net



자폐 극복한 세계적 동물학자 이야기… 안동서 연극 ‘템플’ 진행

9일 저녁 7시 문화예술의전당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9일 저녁 7시 웅부홀에서 연극 ‘템플’을 진행한다.

연극 ‘템플’은 자폐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동물학자이자 미국 가축 시설의 3분의 1을 설계한 여성으로 잘 알려진 ‘템플 그랜딘’의 생애를 모티브

로 만들어졌다.

극단 ‘공연배달 서비스 간다’를 통해 만나는 이번 작품은 인물의 대사로 얻을 수 있는 드라마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인물의 심리, 상태, 감정 등을 신체 움직임으로 최대한 활용해 전달하는 피지컬 씨어터(신체 연극)이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이야기로 어린 시절 자폐아 진단을 받았지만 결국 촉망받는 학자로 성장한 ‘템플 그랜딘’의 실화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포용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자신을 움아매고 있었던 억압을 이겨내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믿음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고 만드는데너지 못하는

독특한 시각적 구상을 표현해내는 동물학자 ‘템플 그랜딘’을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연극 템플’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진행되며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화(840-3600) 또는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백연자씨 “과수원 선생님 이름표 달고 행복한 농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우수상’

문경시는 (사)한국여성농업인 문경시연합회 회원 백연자(마성면·53, 사진)씨가 ‘제5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농협중앙회 회장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전국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작품 중 예심을 통과한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 1명(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우수상 5명(농협중앙회 회장상) △장려상 14명(한국농어민신문사 사장상)을 선정했다.

백연자씨의 출품작 ‘과수원 선생님’은 어린 시절 과수원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사과 과수원을 하는 남편과 결혼한 이야기,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함께한 과수원에서 홀로서거하는 과정, 현실은 녹록지 않았지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과수원을 키워 나갔고 더불어 애육원 아이들과도 인연을 맺고 그 아이들에게 꿈이라는 희망을 안겨주는 이야기 등을 간간하게 담았다.

백연자씨는 “이번 수기 공모전을 통해 삶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우수상을 받게 돼



정말 기쁘다. 요즘 어머니와 두 아이들의 든든한 응원을 받으며 시련 뒤에 꾸려가는 두 번째 삶에서 과수원 선생님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행복한 농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일할 수 있는 과수원이 있어서 행복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백연자씨는 (사)한여농 문경시연합회 마성면지회 총무직을 맡아 활동하며 지역사회에도 크게 기여하고 해마다 과수원에서 가장 좋은 사과를 애육원에 기부하는 모습이 인상적 있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농촌을 가꾸고 농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은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 당당히 경영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문예 창작 활동을 통해 직업인으로서 자긍심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50명 성악가와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대구오페라하우스, 7명 작곡가와
12편 작품 속 아리아·합창 구성

대구오페라하우스가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로 개막, 창작오페라 ‘하왕후’, ‘윤심덕, 사의 찬미’를 성공적으로 무대에 올리며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든 제18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일환으로 대구성악가협회와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선보인다. 대구를 대표하는 성악가 50명이 출연할 이번 공연에서는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오페라 속 유명 아리아와 중창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구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박지운의 지휘,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 디오의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라 트라비아타’,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 ‘투란도트’,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등 7명의 오페라 작곡가와 12편의 작품 속 아리아와 합창으로 구성돼 있어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부터 오페라 애호가까지 다양한 관객의 입맛을 만족시켜 줄 예정이다.

특히 일반적인 콘서트와 달리 레퍼토리를 구성하고 곡마다 해당 장면을 실감나게 연출해 줄 이상민 연출가가 참여해 공연을 보다 몰입감 있게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장르 작품으로 군민에 큰 위로를”

고령미술인협회, 창립전시회
서양화·수채화·도예 등 선보

고령미술인협회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6일간 대가야 문화누리 전시실에서 창립전시회를 개최한다.

고령미술인협회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30명의 모여서 회화·조각분과(분과장 김석화), 공예·서각·디자인분과(분과장 이숙량)로 구성해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미술과 함께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범했다.

한편 이번 창립전시회는 ‘고령에 美 치고 備’에 취하다’라는 주제로 서양화, 수채화, 도예, 공예작품 등 다

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전망이다.

염상우 회장은 “고령미술인협회는 지역민과 소통하며 문화예술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술 발전과 풍요로운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환 군수는 “고령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기반 조성을 위해 힘을 기울이며 지역이 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 전시회가 많은 군민 여러분이 참여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l515@daum.net

반시 ON 나, 청도로 온나!

LIVE 2021 온라인 청도 반시 축제

2021.10.08(금) ~ 10.17(일)

청도반시축제홈페이지 www.청도반시축제.kr

공식 유튜브 청도반시TV

하나

개막식·청도반시콘서트_ZOOM 참여 가능

10.09(토) 18:00~



에 일 기



설 하 운



류 지 강

나눔

방구석 '감'사 트롯콘서트

10.10(일) 18:00~



나 태 주



은 가 은



박 서 진



안 소 미

세

맛보자! 청도반시~라이브커머스

10.08(금) ~ 10.17(일)

네이버쇼핑라이브에서 진행 **쇼핑 LIVE**

네

즐기자! 청도반시축제~

- 뽀뽀(funfun)한 반시쿠키 클래스
10.10(일), 17(일) 17:00~ 게스트 이상호&이상민, 정승환
- '감'잡아쓰~ 도전! 청도골든벨_ZOOM 참여 가능
10.13(수), 16(토) 17:00~
- '감'사 SHOW in 청도
10.09(토) 14:00 게스트 한현민
10.10(일) 14:00 게스트 이상호&이상민
- 현장출동! '감'따라 '흥'따라
- 반시 song 댄스챌린지
- 청도반시 이색가요제

※ 엄중한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10월 지역축제에 대한
정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 개최하오니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www.청도반시축제.kr

CHEONGDO

주최



청도군

주관



청도반시축제 추진위원회